



끝없는 도전으로 성숙해진 연기력 배우 정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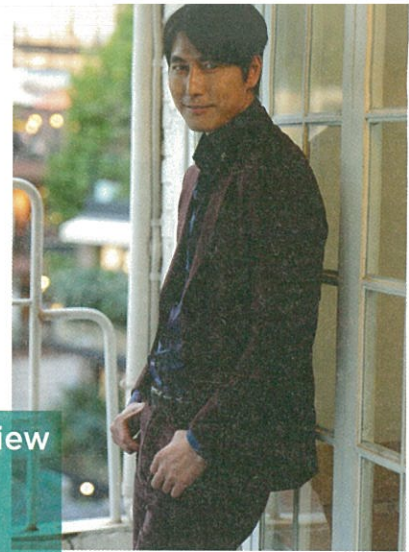
2014년 정우성은 영화 '신의 한 수'와 '마담 뵙덕'에서 배우로서 흥행과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그야말로 정우성의 해다. '신의 한 수'에서 상남자스러운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면 '마담 뵙덕'에서는 파격적인 연기와 노출을 감행했다.

글 김겨울 스포츠조선 기자 사진 뉴시스

불혹이 넘었지만, 정우성은 영화 '마담 뵙덕'에서 잘생긴 외모에 연기력, 탄탄한 몸매로 여성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에게 마담 뵙덕의 심학규란 캐릭터에 대해 물었다.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학규는 지금보다 더 찌질한 남자요 묘사돼 있었다. 난 거기서 학규가 가진 장점과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다. 찌질함을 좀 털어내고, 무너져가고, 망가져가는 속에서 수컷 본능을 더 부각하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다행히 임필성 감독도 이런 나의 의견을 좋아해주고, 수렴해주었다. 그렇게 학규가 만들어졌다.”

세월과 그 나이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정우성표 심학규의 탄생.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의 말속



interview

에 고심의 흔적도 엿볼 수 있었다. “심정적 동이가 안 가는 신도 있고, 그런 신들을 촬영할 때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심학규로서 타당한 선택이라면 이해하고 몰입하고 싶었다. 배우라면 작업을 할 때 잡다한 우려나 걱정은 떨쳐버리고, 작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의도보다는 감성, 인물이 놓여 있는 상황 속 감정들을 집중해 보여줘야 하니까. 그런 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가야 하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더라.”

화제는 자연스레 어릴 적 꿈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처음부터 영화배우를 꿈꿨다. 초등학교 때 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게 낙이었다. 토요일화가 했는데, 뽀뽀뽀라. 뽀뽀뽀라. 광고가 시작되면 그렇게 가슴이 떨릴 수가 없더라. 동시상영관도 자주 찾았다. 영화 보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중학교 때부터 배우가 되고 싶어 원서도 넣어보고, 학교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텔 일을 시작하면서 방송국 3사에 원서도 다 넣었고, 그러다 텔레비전의 버라이어티 쇼에 나오고, 패널로도 나오고, 단막극에도 나오고 그러다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데뷔 20주년이 됐다. “나이가 든다는 것, 세월을 잘 받아들이면 많은 것을 들어주는 것 같더라. 그게 건강의 비결이 될 수도 있다. 나이를 받아들일 줄 알고, 그 나이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그러곤 “앞으로 20주년을 준비하는 신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을 부정하지 않기엔, 그 위에 생기는 주름 같은 것들조차 내겐 다 소중한다. 남자는 나이가 들었을 때 진짜 남자의 향기가 나지 않나.”라며 웃었다.

새로운 캐릭터 도전은 생존과도 같다

솔로 생활도 길었다. 슬슬 결혼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결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결혼은 내게는 미지의 세계인 것 같더라.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은 한 구석에 항상 있다.”고 말한다. 슬쩍 이상형을 물었다. “예쁘다가보다 아름다운 사람 있지 않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말이다. 그건 ‘예쁘다’나 ‘아니다’로 규정할 수 없다. 어

떤 사람은 말투만으로 매력적일 수 있고, 울퉁은 자세도 매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면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이상형이다.”라고 한다. 끝으로 20년간 톱배우로 살아온 정우성의 원동력이 궁금했다. 그에게 멘토는 있었을까. 있었다면 누구일까. “애석하게도 내게 멘토는 없었다. 정구 교육을 마친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내 선택대로만 살아왔다. 선배도 없고 그랬다. 편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촬영장에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했다.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새로운 고민, 그것을 파헤치고 결과물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과정에서 의식하지 못한 스트레스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한다.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하는 것은 생존과도 같다.”

TIP

정우성의 동안 관리 비법은?

정우성은 1973년생으로, 올해 41세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잘생긴 동안을 자랑한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관리를 해야 한다.”며 “아침에 매일 체중을 재고 식단을 관리한다.”라고 밝혔다. “체중을 재는 것은 단순히 살을 뺀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붓고 급하게 체중이 늘 수 있으니 매일매일 조금씩 관리한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자신의 동안 관리 비법을 털어놓았다.